

박정희 18년 '한강의 기적'이 노동자의 희생 위에 이뤄졌다고?



박정희는 중화학공업화로 기능공을 양성했고,
그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하여 '민주화'를 이루도록 했다.
그러나 이들의 후예가 마침내는 '노동귀족'으로 변질했다.

"박정희는 노동자를 결코 착취하지 않았다. 이들을 '마이홈', '마이카',
그리고 휴가철에 해외여행을 누리는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정희 백 년이 공산주의 백 년을 압도하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대기업 노동자는 더 이상 '해방'이 아니라 '세습'의 대상이 되었다.
비정규직을 방패막이로 삼아 자신들의 고용을 보장받은 것도 이들이었다.
이제는 국가를 위해 보답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03300
www.guiparang.com
ISBN 978-89-6523-660-3

값 16,000원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

대한민국 기능공의 탄생과 노동귀족의 기원

류석춘 저



기파랑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했는가
대한민국 기능공의 탄생과 노동계급의 기원

류석춘 저

기피랑

최근 들어 한국 근현대사를 주름잡던 정치인, 기업인 등 다양한 인물에 관한 자서전, 평전 등이 봇물 터지듯 출간되고 있다. 정신없이 달려온 지난 백여 년의 근현대사를 증언하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이제 우리나라도 기록으로 남길 가치가 있는 역사적 인물들을 발굴하고 재평가하는 흐름이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기록의 가치가 있다고 해서 해당 인물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긍정적일 수만은 없다. 특히 박정희라는 인물이 그렇다. 박정희에 대한 기록은 넘쳐나지만 그 방대한 기록만큼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오히려 너무 많은 기록이 논란을 낳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올해는 박정희 탄생 100주년이 되는 해다.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이 의욕적으로 벌이고 있는 『박정희 전집』과 연구서 발간사업의 의의가 결코 가볍지 않다. 박정희, 그리고 온갖 불확실성과 잠재력이 공존했던 역동적인 그 시대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더욱 필요한 때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경제의 공(功)과 정치의 과(過)'로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유신 선포를 통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훼손은 그가 무덤까지 안고 가며 부담해야 하는 과오일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오를 명분으로 박정희 대통령의 공로를 경제발전에 국한시키고, 그 경

제 업적마저 생채기 내리는 시도들도 끊임없이 있어 왔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박정희가 노동자를 착취했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이룩한 이른바 경제기적은 박정희가 노동(자)에 대한 억압과 착취를 감행해서 일부 재벌로 대표되는 기업만을 살찌운 착시효과 때문에 느껴지는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책은 이러한 인식이 얼마나 영터리인지 고발하는 책이다. 이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은 굳이 멀리 갈 것 없이, 세계 최고의 노동 강도를 자랑하면서 저발전의 뒷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북한의 존재가 적나라하게 보여 준다. 노동을 흑사시키기만 해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면 북한이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제기적을 만들어야 했다.

이 책은 저자가 오랫동안 품어 온 질문의 답을 찾는 과정의 부산물이기도 하다. 학자로서 저자는 제3세계의 발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수많은 국가 가운데 한국의 눈부신 경제성장은 저자뿐만 아니라 모든 제3세계 연구자들에게 일종의 수수께끼다. 물론 이 수수께끼를 푸는 작업은 국가, 시장, 그리고 사회의 역할에 대한 입체적인 접근 없이는 불가능하다. 적절한 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는 정부, 그에 부응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해외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 그리고 헌신적인 동기로 성취를 지향하는 노동, 이 세 주체의 조합이 발전의 열쇠다.

이 책을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그리고 발전국가(developmental state)라 불리는 그 시기를 미화할 의도는 없다. 강성노조, 노동귀족 등 2017년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가장 심각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바로

박정희, 그리고 발전국가의 유산이라는 사실을 이 책은 또한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단순히 거시적인 경제지표에만 기대지 않았다. 당시를 살아낸 노동자들의 생생한 삶의 기록을 충실히 담으려 노력했다.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동료 및 후배 기능공 출신 숙련노동자들을 면접하는 데 도움을 준 EM코리아의 유한식 사장께 감사한다. 그는 왜곡되어 알려진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과 노동자의 역할을 바로잡고 싶어 했다. 그의 삶 그리고 증언이 이러한 오해가 틀렸음을 웅변하고 있다.

연구를 재정적으로 지원해 준 좌승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그리고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께 감사한다. 특히 아산정책연구원이 정주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한 『아산연구총서』 집필에 참여한 경험이 이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총서 집필 과정에서 현대중공업이 제공해 준 자료는 이 책의 내용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유사한 시기에 별개로 진행된 연구였으나 저자는 정주영을 연구하면서 박정희를 보았고, 또 박정희를 연구하면서 정주영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고백한다.

연구의 성과를 2016년 11월호부터 2017년 6월호까지 나누어 발표할 수 있도록 ‘류석춘의 한국사회 읽기’ 지면을 제공해 준 『월간조선』 문갑식 편집장에게도 감사한다. 동료 연구자로 날카로운 비평을 해 준 호주 국립대 김형아 교수,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왕혜숙 박사,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초빙연구위원 유광호 박사, 그리고 원고 정리를 도와준 청년박

정희연구회 부회장 여명에게 감사한다. 마지막으로 출판을 수락한 기파
랑의 안병훈 사장과, 편집을 맡아 준 김세중 편집자에게도 감사한다.

2017년 10월

류석춘

| 차례

책머리에 5

서론 박정희 백 년 대 공산주의 백 년, 그리고 노동자 착취 문제 15

1. 박정희 백 년 대 공산주의 백 년 17
2. 노동자 '착취' 그리고 한국의 노동자 연구 21

02 박정희와 1960년대 봉제산업 노동자 25

— 『전태일 평전』에 따라도 착취 아니다

1. 『전태일 평전』의 함정 27
2. 전태일의 평화시장 경력과 임금상승: '착취'라고? 30
3. 전태일의 노동운동 투신과 모범업체 구상 그리고 분신: '대학생 친구'가 없었
다고? 38
4. 전태일의 선택: 다른 동시대인의 선택은? 51
5. 전태일의 죽음은 아름답지 않다 56

03 박정희와 1970년대 중화학공업 노동자 59

— 숙련노동자 기능공의 대규모 탄생

1. 박정희 대통령의 중화학공업화(1973~1979) 61
2. 1970년대 초반의 노동시장 구조와 과학기술인력 양성 63

3. 기능공 육성정책 72
4. 소결 92

04 숙련노동자 기능공의 중산층화 95
- 현대중공업 사례를 중심으로

1. 서론 97
2. 현대중공업 기능공의 계층이동 99
3. 중산층 사회의 등장과 오늘날의 문제 137
4. 소결 143

05 1997년 외환위기와 노동시장의 양극화 147
- 노동정치와 노동운동의 분열

1. 1997년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149
2. 기업의 구조조정과 실업 151
3. 정부의 위기관리: '노사정위원회'와 노동정치의 실패 163
4. 노동운동 내부의 파벌투쟁 173
5. 소결: 기업별 노조와 '귀족' 노조 탄생의 서막 180

06 설문조사로 본 중화학공업 부문 노동자의 노동조합 평가 183

1. 머리말 185
2. 중화학공업 부문 노동자의 '귀족' 노조 평가: 2014~2015 188
3. 시계열 설문조사로 본 숙련노동자 기능공의 노조에 대한 평가: 1978, 1987, 2005 197
4. 소결: '귀족' 노조 맞다 207

결론 박정희는 노동자를 착취하지 않았다 209

1. 한계노동생산성과 임금상승: 시계열 통계자료(1963~1999) 211
2. 박정희와 대기업 '귀족' 노조: 노동보국(勞動報國)이 필요하다 213

보론 대학생들의 박정희 대통령 평가와 현대사 교육 문제 219

1. 머리말 221
2. 박정희에 대한 대학생들의 평가 222
3. 박정희에 관한 역사적 사실 226
4. 응답자의 의견이 형성된 시기와 영향을 미친 집단 229
5. 맺는말 232

| 차례

참고문헌 235

부록

1. 1983년 초판 『전태일 평전』의 분신 기록 246
2. 2009년 신판 『전태일 평전』의 분신 기록 247
3. 미국 교포 잡지 *Korea Monitor*의 필진 이선명 248
4. 1973년 현대중공업 입사 기능공(생산직)의 연도별 기본급 자료 (1973~2015) 249
5. 생산직 사원 심층면접 질문지(현대중공업, 현대위아[기아기공 출신], 두산중공업[대우중공업 출신]) 252
6. 현대중공업 응답자의 특성 264
7. 기아기공 출신 현대위아 응답자의 특성 265
8. 대우중공업 출신 두산중공업 응답자의 특성 266